

지속가능을 위한 현대 패션의 창의적 재활용

채 은 지 · 주 보 립*

이화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박사과정
이화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전공 교수*

요 약

인류와 환경을 위한 지속가능의 실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었다. 과거에는 발생한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목적을 두었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폐기물의 발생 자체를 줄이고 자원 순환의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친환경 패션, 업사이클링 패션, 컨서스 패션 등 지속가능한 실천을 위한 연구와 개발을 이루고,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윤리적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과 소비자의 의식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를 토대로 발전된 창의적 재활용의 움직임은 패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으며, 예술적 가치를 더한 윤리적 생산과 소비 양식으로서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윤리적 책임 의식을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대 패션의 흐름을 살펴보고, 디자이너 및 패션 브랜드에 나타난 창의적 재활용 디자인 사례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형 특성 및 의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 방법으로는 버려지는 자투리 원단이나 재고 원단을 활용한 의류 생산 공정 폐기물의 재활용, 재고 의류를 활용한 재활용, 포장재 폐기물을 활용한 재활용으로 유형을 나누었으며, 주로 자원의 환원에 목적을 가졌던 지속가능한 패션 디자인과는 차별화된 발전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환경과 패션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이루는 데 의미가 있다. 폐기물의 활용 범위를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자원의 수명을 이어가는 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되는 자원의 특성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여 전개함으로써 폐기물의 재해석 관점에서 차별화된 표현 특성을 가지고 사회적 가치의 실천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패션의 창의적 재활용은 미래를 위한 공존의 핵심 가치로서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창의적 재활용, 지속가능성, 자원 순환

*교신저자: 주보림, brjoo@ewha.ac.kr

접수일: 2022년 4월 28일, 수정논문접수일: 2022년 5월 26일, 게재확정일: 2022년 7월 20일

I. 서론

현대 산업 사회는 고도화된 생산과 소비 체제를 이루며 자연을 훼손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의 2018년 기후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패션 산업에서의 환경 파괴는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8%를 차지하며 자원의 물질적 낭비뿐만 아니라 생산방법, 염색, 물, 에너지, 화학물질 등 모든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발표하였다. 짧은 주기로 빠른 회전율을 나타내는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이 산업을 주도하기 시작하면서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은 자원의 고갈, 기후 환경의 변화 등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쉽게 사고 버리는 소비 행태가 만연해지며 의류 폐기물을 대량으로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패션과 환경오염의 개연성은 더는 간과할 수 없는 주요 문제로서 환경과 인류의 지속을 위한 윤리적인 의식과 행동 변화가 촉구되고 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패션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자원 순환을 목적으로 한 선행 연구와 기업 및 브랜드의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총 10편의 지속가능한 패션의 사례 연구(Jeong, 2012; Kim, 2020b; Kwan, 2012; Lee, 2014; Lee et al., 2018; Lee, 2019a; Lee, 2019b; Lyu, 2006; Park & Kim, 2014; Wang, 2014)에서 재활용의 특성을 활용한 리사이클링 패션(recycling fashion)이나 업사이클링 패션(upcycling fashion), 제로 웨이스트 패션(zero-waste fashion), 슬로우 패션(slow fashion) 등 대다수가 소재 자체가 생분해되는 천연 소재이거나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디자인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체로 적정 디자인과 실용적인 디자인(Lee, 2019a)으로서 지속가능한 패션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패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자원 순환을 이루는 소

재에, 디자인과 활용성을 더하여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창의적 재활용의 개념(“재활용”, n.d.)을 더해 지속가능한 패션의 발전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크리에이티브 리유즈(creative reuse)로 불리는 창의적 재활용은 종래의 재사용 또는 용도 변경을 이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재사용(reuse)의 의미(“Reuse”, n.d.)와 유사성이 있으며(Sandt et al., 2019), 만들어진 물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한 물건들을 분해하여 재활용, 재사용하는 개념이 아닌, 바로 그 물체 자체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Rufus, 2015). 재배치를 의미하는 유의어 리퍼포징(repurposing)과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자원 순환의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실천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창의적 재활용 디자인은 새로운 가치 공유 패션으로서 모든 폐기물을 순환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하여 활용하고, 이에 심미적 가치를 더한 제품으로 탄생시켜 자원의 가치를 향상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 순환의 원리를 적용하면서도 심미적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창의적 재활용의 표현 특성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미래 패션의 실질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위한 현대 패션의 중요성과 가치를 재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방법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창의적 재활용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하여 업사이클링 패션, 리사이클링 패션 등 지속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문헌 연구, 신문 기사 및 패션 정보의 고찰을 우선으로 한다. 자료 수집의 범위는 유엔 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선언을 채택하며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의지와 문제 해결의 책임을 강조하고 행동 촉구를 시작(Lee, 2019a)한 2012년부터 연구 시기인 2022년까지로 한정하고, 국내·외 패션 기업 및 브랜드의 제품과 컬렉션에 나타난

지속가능한 디자인 사례를 수집하여 조사, 분석하여 지속가능을 위한 패션의 발전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먼저 창의적 재활용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Lee(2019b)는 창의적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소재를 재활용하여 제품을 개발하여야 하며, 삶 속에서 직접 재활용 디자인을 실행할 수 있는 소비까지 이어 나가야 하는 것이라 정의하였다. Ham(2021) 또한 재활용 디자인이란 버려지는 자원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더해 새로운 가치로 쓰이는 용도로 재탄생시키는 것으로, 본래보다 더 가치 있는 제품으로 구분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어 기존의 재활용과는 차별성이 있다고 정의하였다. 이에 반해 일각에서는 창의성에 관한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인 것임으로 창의적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낭비하지 않고 새로운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폐기물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재활용과는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생산, 소비 과정에 이르기까지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심미성을 나타낸 디자인 사례를 수집 분석하는 방법으로 총 스물다섯 개의 창의적 재활용 디자인 사례를 최종 선정하였고,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자원 순환을 이루는 소재의 활용 범위와 방법을 살펴보고 미래 가치를 위한 지속가능 패션의 실질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II. 지속가능성과 창의적 재활용

1.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 디자인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종합정보 시스템에 의하면, ‘지속가능’의 개념은 1972년 6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국제연합인간환경회의(UNC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uman Environment)에서 최초로 사용되었으며, 인간 환경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하고 발표하는 자리에서 ‘환경적인 제약을 고려하지 못하는 경제개발은 낭비적이고 지속 불가능하다’라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표현이 언급되었다. 이후,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에서는 ‘인간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 논의되어야 하고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누려야 한다’라며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하였다(“지속가능발전의 생성과 전개”, n.d.). 이를 통해 지속가능의 개념은 인간의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양상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 발전되었으며,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상징적인 주제로서 전환을 이루고 있다.

지속가능 디자인의 개념은 2000년 독일 하노버 엑스포 2000에서 윌리엄 맥도너(William McDonough)에 의해 다음의 네 가지 원칙과 같이 주창되었다. 환경 영향의 최소화 지향(re-fine), 자연 생태계 회복하려는 디자인적 접근(re-design), 물질 순환의 활성화 추구(re-cycle), 인간과 자연의 공생을 위한 디자인(re-think)이다. 이는 즉, 디자인의 개념에서도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부분이 모두 어우러져야 진정한 지속가능의 디자인을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질적 향상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디자인의 기능은, 환경오염에 기인한 전 세계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의 사고로 전개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Lyu & Huh, 2006).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는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다양한 각성의 움직임은, 지속할 수 있는 자연환경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으로 발전하며, 단순한 자연

의 통제, 오염 규제를 벗어나 자연의 순환 원리를 디자인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다(Kwan, 2012). 이러한 디자인을 위해서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조형, 양산, 생산, 서비스 등 전반적인 모든 활동에 친환경성 및 사회성 증진을 위한 개념이 적용되어야 하며, 결국 기업 내 디자인 프로세스와 생산에 대한 총체적인 전략과 관리가 필요하다(Kim & Kim, 2010).

실제로 기업에서 적용되는 지속가능 디자인의 경우, 제품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생산, 판매, 폐기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의 이슈를 고려함으로써 넓은 관점에서 현재와 미래 세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관행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유행이 아닌 미래 보존을 위한 핵심 가치로서, 자원 활용의 극대화, 최소한의 폐기물 발생 등 지속가능 지향의 과정과 결과가 실현되기 위해 다각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 결국 지속가능을 위한 디자인의 영역은 방법적으로 각기 다른 특성을 나타내지만, 인류와 환경의 지속을 위한 실천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공통된 가치가 있다. 환경에 끼치는 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경제적 지속성과 사회적 공정성의 속성을 가져야 하며, 디자인의 관점에서도 제품의 목적과 소비를 고려한 물리적 요구가 충족되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2. 지속가능 패션과 창의적 재활용

지속가능을 위한 움직임은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 능력을 보존하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 환경, 경제 등 분야에서 재생산할 수 있도록 절제된 상태의 개발(Fuad-Luck, 2009)을 의미한다. 특히 유행 주기가 짧은 패션에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미래 세대가 사용할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하지 않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기 위해 자원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실천으로 이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나타낸다. 따라서 패션의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을 위해 연결성과 공생을 위한 가치 공유에 의의를 두고, 상품 기획 단계부터 생산, 제작, 사용, 재사용, 처분 등 모든 공급망에서의 변화를 일으킬 필요가 있다(Lee, 2019a).

이러한 관점에서 서울새활용플라자(SUP: Seoul Upcycling Plaza)는 물건을 처음 만들 때부터 환경과 자연을 생각하고, 가치 있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의미를 담아 만드는 것을 재활용이라 정의하며, 윤리적인 책임 의식을 인식하고 패션 산업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확산하기 위해 가치 실천을 이어가야 한다고 하였다(“새활용이란”, n.d.). Fletcher(2008/2011) 또한 지속가능한 실천을 위해 제품을 최대한으로 사용하여 폐기 전까지 최대 이익을 끌어내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폐기물을 활용하고, 상품을 수선하여 사용하며, 의복의 전략적으로 관리하여 활용하는 것 또한 환경에 가하는 영향을 개선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패션은 디자인 및 품질 측면에서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감성적 반응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하므로 지속가능의 관점에서 창의적 재활용은 미래 가치를 지닌다. 여러 방면에서 폐기되는 소재의 다양성을 낭비하지 않고 새로운 제품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주로 자원의 환원에만 목적을 가졌던 지속가능한 패션과는 차별성이 있으며, 구현 방법에서 또한 옷의 기능을 확장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기성품과 같이 창의성과 심미성을 담은 디자인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점에서 윤리적, 감성적 가치를 더한다.

유사 개념인 업사이클링, 리디자인, 리사이클링 등과 비교해보면, 업사이클링이라는 용어는 1994년 독일 산업 디자이너였던 라이너 필츠(Reiner Pilz)가 낡은 제품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트럭의 방수 덮개로 가방을 만들고,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의

류를 만드는 등(Kim, 2021) 사용 후 버려지는 물건에 새로운 용도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 더 높은 수준의 순환형 디자인으로서 ‘업(up)’은 이미 낡고 오래된 물건에 독창적인 디자인을 더 해 재창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리디자인, 리사이클링은 다시라는 의미하는 접두어 ‘리(re)’는 다시 구성된 디자인으로 정의할 수 있다. 폐지를 다시 종이로 만들어 재사용을 하기 위해 별도의 공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과 같이, 이미 사용하였던 제품이나 재료를 분해하거나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변형하여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 재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Oh et al., 2016). 이에 반해 창의적 재활용은 낡고 오랜 기간 사용한 것이 아닌, 버려지는 자원이나 무가치한 폐기물을 대상으로 디자인 요소를 더한 윤리적 생산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어 기존의 재활용 디자인과는 차별화된 가치가 있다. 또한 환경과 인류가 보존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개념 속에서 지속가능의 개념을 아우름과 동시에 심미적 요소를 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높은 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을 나타낸다.

III. 지속가능을 위한 패션의 창의적 재활용 유형

디자인만으로는 자원의 고갈을 막고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필요 이상의 낭비를 줄이고 자원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 또한 환경을 파괴하는 영역을 좁히고 지속가능을 위한 실천을 이어갈 수 있는 대체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현대 패션 디자이너 및 브랜드에 실용화되어 나타난 창의적 재활용의 방법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순환을 이룰 수 있는 활용 범위와 표현 특성에 대해 살펴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유형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버려지는 자투리 원단이나 재고 원단을 활용하여 새로운 라인으로 전개하는 생산 공정 폐기물의 재활용, 둘째, 대량 생산으로 인해 버려지는 재고 의류를 분해와 재조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재고 의류의 재활용, 셋째, 생산, 운송, 소비 등 모든 단계에서 무작위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이다.

1. 의류 생산 공정 폐기물의 재활용

다음의 이미지는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cQueen)의 재고 원단과 자투리 원단을 활용하여 구성한 제품이다. <Figure 1>은 2019 F/W 작품으로 재단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자투리 원단 조각을 모두 취합한 다음 소용돌이 문양으로 주름을 잡아, 이어 붙이고, 이를 장식으로 나타내 완성한 코트이다. <Figure 2>는 남성복 원단 재고로 있던 콤팩트 울 트윌(compact wool twill)과 폴리 파유(poly faille)를 재활용한 드레스로 새로운 여성복 컬렉션과도 이질감 없이 잘 어우러지고 있다. 특히 봉긋한 소매 라인과 드레이퍼리한 스커트는 맥퀸의 디자인 요소를 잘 표현하고 있다. 2020 S/S에서 선보인 <Figure 3>은 2016 S/S 시즌에 사용되었던 미색 꽃무늬 레이스와 2019 Pre S/S 시즌의 옅은 골드 비너스 쉘(the pale gold venus shell)과 물결무늬 비단을 덧대어 장식한 스칼롭 실크 파유 자카드(scallop silk faille jacquards), 그리고 재고 원단으로 남아있던 미색 워시드 오간자(washed organza)와 태피터(taffeta), 캘리코(calico)를 재활용하여 구성한 드레스로 각기 다른 시즌의 원단을 활용하였지만, 질감, 패턴, 두께의 차이도 모두 잘 어우러져 이질감 없는 디자인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폐기물을 모두 소진하기 위해 동그라미 모양의 천 조각들은 모두 손으로 재단하기도 하였다. 맥퀸의 지속가능을 위한 실천은 컬렉션뿐만 아니라, 잔여 소재를 영국 패션 교육 시설에 지원하는 등 자원을 나누



Figure 1. Alexander McQueen 2019 F/W.
From Singer. (2019).
<https://www.vogue.com>



Figure 2. Alexander McQueen 2021 S/S.
From Madsen. (2020).
<https://www.vogue.com>



Figure 3. Alexander McQueen 2020 S/S.
From Singer. (2019).
<https://www.vogue.com>



Figure 4. Courtesy of Max Mara.
From Cardini. (2020).
<https://www.vogue.com>



Figure 5. Max Mara's off-cuts
from the label's coat.
From Mira. (2019).
<https://www.fashionnetwork.com>



Figure 6. Max Mara's The Cube Line.
From Mira. (2019).
<https://www.fashionnetwork.com>

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기도 하며 미래 가치를 위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막스마라(Max Mara)는 그동안 친환경적 행보를 위해 자투리 원단의 수명을 최대한으로 연장하여 소진하고,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생산 공정을 개발하는 데 힘써왔다. <Figure 4>와 같이 막스마라 하우스에서 보유하고 있던 남은 직물과 실을 배색하여 퍼즐처럼 짜 맞춘 니트 탑(knit top)을 프로젝트 라인으로 선보이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이노베티브 프로젝트를 통해 자투리 원단을 폐기하지 않고 절연 소재로 만들어 패딩의

충전재로 사용함으로써 동물 착취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Mira(2019)에 따르면, 막스마라를 설립한 가족의 3대 자손인 엘리아 마라모티(Elia Maramotti)는 순환 패션을 위해 폐기되는 원단을 모두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으며, 1년 반 동안의 연구 끝에 카멜릭스(Cameluxe)라고 불리는 새로운 절연 소재를 만들어 2020년부터 '더 큐브' 패딩 오버코트 라인의 일부 모델에 사용할 것이라 밝혔다. 즉, <Figure 5>의 막스마라 시그니처 아이템 카멜 코트의 버려지는 자투리 원단을 모두 활용하여 절연 소재를

만들고, 이를 패딩 안의 충전재로 활용함으로써 <Figure 6>의 새로운 패딩 오버코트 라인을 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폐기물의 발생과 새로운 원자재 소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미성, 보온성, 활용성을 모두 고려한 디자인 이상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다.

구원 또는 영원이라는 의미의 일본 브랜드 쿠온(Kuon)은, 2016년 S/S 첫 컬렉션을 통해 시대가 변하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가치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였다. 한 옷이 가지는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이 활용함으로써 의미를 발견하는 것에 목적을 둔, 지속가능을 위한 패션 브랜드이다. 주로 <Figure 7>의 세트 업(set-up)이나 <Figure 8>의 재킷(jacket)처럼 원단 조각 위에 원단 조각을 덧대고, 색상에서 대비를 둔 미적 요소를 나타내는데, <Figure 9>의 재킷처럼 비슷한 톤(tone)의 색상을 사용했을 경우엔 각기 다른 자수 패턴을 더해 디자인적 요소를 나타내기도 한다. 쿠온의 제품은 어느 제품 하나 같은 디자인이 없다는 점에서 희소가치가 있으며, 그들의 공정 방식에서도 기계를 통해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것이 아닌, 일본의 전통 바느질 법인 보로와 사시코 방법으로 장인들에 의해 한 땀 한 땀 전개되기에, 윤리적 생산 과정 또한 지속가능의 실천으로서 의미가 있다.

2. 재고 의류의 재활용

일부 유럽 연합 국가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소각 및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Kim, 2019)되며 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는 문제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품의 회소성과 브랜드의 품격 유지를 위해 무가치한 재고 의류를 과감하게 태우던 지난날의 패션 행보와는 달리, 최근에는 폐기되는 제품에 아이디어를 더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제품으로 대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고 의류의 재활용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재고 의류를 재활용하여 컬렉션을 전개하는 현대 패션의 디자인 사례를 분석하여 제품력을 가진 생산 구조에서 지속할 수 있는 자원 순환의 대체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은 파리 패션위크에서 친환경적인 제작 공정과 소재의 재활용 디자인으로 이목을 끈 레이브 리뷰(Rave Review)의 컬렉션이다. 디자이너 조세핀 베르키스트(Josephine Bergqvist)와 리비아 슈크(Livia Schück)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브랜드의 신념을 기반으로, 빈티지 마켓이나 온라인상의 개인 판매자 등에게서 공수한 재고 의류와 담요를 가지고 해체 및 재조합의 방식에 의한 단 하나의 디자



Figure 7. Kuon 2020 F/W.
From Silbert, (2020).
<https://www.hypebest.com>



Figure 8. Kuon 2016 S/S.
From Hoshino, (n.d.a).
<https://www.kuontokyo.myshopify.com>



Figure 9. Kuon 2016 F/W.
From Hoshino, (n.d.b).
<https://www.kuontokyo.myshopify.com>

인을 선보이고 있다. <Figure 10>은 레이브 리뷰의 시그니처 아이템인 블랭킷 코트(blanket coat)로, 폐기 대상인 타르탄(Tartan) 체크무늬의 담요를 가지고 제작하였다. <Figure 11>은 멀티 컬러의 타르탄 체크와 자수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원피스로 원단 조각들을 패치워크 기법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색조를 이루며 조화롭게 구성하였다. <Figure 12> 또한 재고 원단과 담요를 활용하여 완성된 드레스로, 재단 된 원단이나 사이즈에 의해 의도하지 않은 절개나 트임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OFF Paris는 디자이너의 데드 스톡(Dead Stocks), 즉 시즌이 지나 폐기 대상의 재고 의류를 재활용

하여 컬렉션을 구성하는 컨템포러리 빈티지 브랜드다. <Figure 13>의 상의처럼 뽀뽀한 소재의 셔츠에 부드러운 실크와 조합하거나 <Figure 14>의 코트와 같이 안감을 겹감으로 활용하는 등, 이질적인 소재의 조합과 패턴, 색상에서의 대비를 나타내는 디자인을 주로 선보이고 있다. 또한 <Figure 15>와 같이 외투의 몸판을 부분적으로 절개한 뒤 위치를 변형하여 조끼로 재활용하는 등, 원작의 질과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되 독창적이고 예상치 못한 디자인으로 표현하며 재미와 개성을 나타내는 그들의 디자인 철학을 보인다. 1/OFF Paris의 지속가능을 위한 패션으로서의 도전은 일회성으로



Figure 10. Rave Review 2020 F/W.
From Bobb. (2020).
<https://www.vogue.com>



Figure 11. Rave Review 2019 S/S.
From "SS19 show". (n.d.).
<https://www.rave-review.com>



Figure 12. Rave Review 2020 F/W.
From "AW20 show". (n.d.).
<https://www.rave-review.com>



Figure 13. 1/OFF Paris 2021 S/S.
From Sockeel. (2021).
<https://www.looiciel.be>



Figure 14. 1/OFF Paris 2021 S/S.
From Sockeel. (2021).
<https://www.looiciel.be>



Figure 15. 1/OFF Paris 2022 S/S.
From "Pre-spring 2022". (n.d.).
<https://www.loffparis.com>

그치는 것이 아닌, 영원한 자원의 순환으로서 패션 생태계의 새로운 관점을 창조하는 시발점을 나타낸다.

런던 출신의 디자이너 프리야 알루왈리아(Priya Ahluwalia) 또한 여러 브랜드에서 수집한 데드 스톱을 활용하여 컬렉션을 전개하고 있다. 자신의 혈통인 나이지리아, 인도 문화를 패션 철학에 담아 의류 폐기에 관한 문제점을 전하고, 개선 방안으로서 지속가능한 패션을 실천하는 것이 그녀의 목적이자 목표이다. 이에 그녀는 재고 의류의 모든 구성 패턴을 분해한 다음, 그녀의 디자인에 맞춰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전개하고 있다. <Figure 16>과 같이 색이나 소재 및 질감에서 대조를 주어 조화를 이루기도 하고, <Figure 17>이나 <Figure 18>처럼 해체주의적 특성을 반영한 패턴 구성과 절개, 배색 조합으로 디자인적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알루왈리아 팀은 폐기되는 재고 의류나 중고 의류를 의미 있게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패션의 지속가능한 움직임에 더욱더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도록 소싱(sourcing) 방법에서도 또한 다양성을 찾고 있다. 이에 그들은 SNS를 통해 매 시즌 컬렉션 준비를 앞두고 디자인적으로 필요한 패턴이나 색상 등의 의류를 공개하고, 사람들

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콜아웃(Call-out)’을 게시하기도 하여 의류를 조달받는 활동을 펼치기도 하고, 컬렉션을 위해 오픈된 콜아웃 기간이 아니더라도, 때때로 백그라운드에서 소싱을 수행함으로써 버려지는 옷이 재활용되는 기쁨과 가치를 누리고, 모두가 윤리적인 움직임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Farra, 2021). 이러한 활동은 소비자로서 꼭 그들의 의상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지속가능한 실천을 위해 동참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 컬렉션을 구현하는데 기여했다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FNC 부문에서 전개하는 브랜드 래;코드(Re;code)에서도 남은 재고 의류와 자투리 원단, 부자재 등을 활용하여 독특한 디테일 요소를 가미한 디자인을 찾아볼 수 있다. <Figure 19>의 재킷은 남성복 브랜드의 재고를 해체하여 여성복으로 구현하며, 착용 대상이나 용도가 바뀐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Figure 20>은 전체적인 패턴을 재구성하여 디자인과 실루엣이 새롭게 표현되기도 하였으며, 단추나 지퍼 등 재고 부자재를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자원 순환의 의미를 쉽고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다. <Figure 21>에서는 2020년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와 협업한 디자인으로 무분별한 소비주의와 과잉 생산의 이면을 짚고 자원



Figure 16. Priya Ahluwalia 2020 S/S.
From Mower. (2019).
<https://www.vogue.com>



Figure 17. Priya Ahluwalia 2020 F/W.
From Mower. (2020).
<https://www.vogue.com>



Figure 18. Priya Ahluwalia 2020 F/W.
From Mower. (2020).
<https://www.vogue.com>



Figure 19. Re:Code 2019 F/W.
From Lee. (2019c).
<https://www.ktnews.com>



Figure 20. Re:Code 2020 F/W.
From Kim. (2020a).
<https://www.happy.designhouse.co.kr>



Figure 21. Re:Code by Nike.
From Nam. (2020).
<https://www.vogue.co.kr>

의 순환을 지향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재고 의류와 부자재를 활용하여 총 30여 개 스타일의 의류와 25개의 액세서리로 재활용하였다.

3. 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

다음은 ‘One Man’s Trash is Another Man’s Treasure’ 즉, ‘누군가의 쓰레기는 또 다른 이의 보물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모스키노(Moschino)의 2017 F/W 컬렉션이다(Peoples, 2017). 당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였던 제레미 스캇(Jeremy Scott)은 일상생활에서 각종 물건을 담는 데 쓰이는 포장재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웨어러블한 런웨이 룩을 완성하였다. <Figure 22>의 안전 봉투 포장재나 <Figure 23>의 비닐봉지, <Figure 24>의 커버 포장지, 신문지, 택배 박스 등 산업과 생활 폐기물을 활용한 가장 동시대적인 컬렉션을 선보이며 우리 사회의 지나친 소비와 낭비 등 환경 문제에 대한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디자이너로서 어떤 옷을 제안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표현한 츠무라 코스케(Kosuke Tsumura)의 브랜드, 파이널 홈(Final Home)이다. 아이디어 발상은 인간이 어찌할 도리가 없는 재해나 재난, 전쟁 시 우리의 궁극적인 집은 옷이라



Figure 22. Moschino 2017 F/W.
From Phelps. (2017).
<https://www.vogue.com>



Figure 23. Moschino 2017 F/W.
From Phelps. (2017).
<https://www.vogue.com>



Figure 24. Moschino 2017 F/W.
From Phelps. (2017).
<https://www.vogue.com>



Figure 25. Final Home Survival Jacket.
From Espadas. (n.d.).
<https://www.lepetitarchive.com>



Figure 26. Final Home 15 Below Project "The Jacket".
From "Final home project", (n.d.).
<https://www.kosuketsumura.com>



는 개념 아래에 전개되었는데, <Figure 25>에서 보이는 서바이벌 웨어와 같이 총 44개의 포켓이 내재하여 있는 아우터(outer) 디자인을 선보였다. 이는 주머니에 알맞게 수납할 수 있는 용도로, 비상 식량이나 의료 장비 등을 수납하여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발상을 <Figure 26>의 캐나다 노숙자를 위한 '15 Below'라인으로 전개함으로써 포장재 폐기물을 재활용한 지속가능 지향 패션으로 주목받기도 하였다. 솜털이나 오리털, 거위털 등이 아닌 44개의 주머니에 신문지를 넣음으로써 영하 15도의 한파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향성 높은 제품으로 친환경적 행보에 동참하고 있다.

이처럼 생산 공정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이나 재고 의류 등을 새로운 가치재로 다양하게 활용함으로써 독창성과 개성을 담은 디자인으로 심미적 표현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고, 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디자인으로서 패션과 환경에서의 균형을 조화롭게 이룰 수 있다. 물론 디자인을 먼저 기획한 다음 이에 맞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제작하는 기성 제품보다는 한정된 표현 기법 내에서 디자인이 전개되지만, 우연에 의한 절개나 트임, 색과 패턴의 조합, 질감의 차이는 독창

적이고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서 예술적 가치를 나타낸다. 작은 자투리 조각을 이어 붙이는 방법으로 면적을 넓혀서 사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더 많은 조각을 내어 질감의 차이를 주거나 입체적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 디자인 요소로서 또한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 따라서 자원 순환을 기반으로 한 창의적 재활용의 실천은 감각적인 디자인을 통해 소비자의 미적 욕구 또한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패션 트렌드의 지향점을 유연하게 변화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IV. 지속가능을 위한 현대 패션의 창의적 재활용 의의

디자인이란 시대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기능과 미에 대한 가치 규범을 지닐 필요성이 있다(Kwan, 2012). 따라서 패션의 창의적 재활용은 현대 소비사회를 살아가는 소비자의 인식에 맞춰 미적 가치를 고려함과 동시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생산, 소비 과정까지도 지속가능함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가치가 있다. 폐기물을 모두 활용함으로써 자원의 수명 연장은 물론, 활용 가치가

있는 자원을 더 오래, 더 가치 있는 상품으로 전개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성 또한 향상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패션의 창의적 재활용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가능한 패션과 순환 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가치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동안 환경적, 사회적 가치의 실천으로서 지속가능한 패션은 경제적 관점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기획 단계부터 제품 개발, 발주, 생산, 공정 등 모든 점에서 가격 경쟁력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맥스마라의 더 큐브 라인과 같이 버려지는 자투리 원단을 모두 활용하여 절연 소재를 만들고, 이를 패딩 안의 충전재로 재활용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과 새로운 원자재에 대한 소비를 줄이고, 윤리적이고 차별화된 발상으로 동물 착취까지도 대체할 가능성을 나타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긍정적 이미지까지도 제고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마케팅 경쟁력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이윤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생산과 소비에 의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순환을 이루며 미래를 이끄는 지속가능한 패션으로서 새로운 가치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둘째, 윤리적, 감성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지속가능 패션으로서 시장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지속가능을 위한 사회적 책임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실질적인 가치 소비를 이루고, 구조 혁신을 이루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친환경 소재에 대한 가격 부담은 물론 가시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일부는 재활용 원단에 대한 반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에 반해 1/OFF Paris나 래;코드 등과 같이 창의적 재활용 패션은 누군가 사용하지 않은 재고 원단이나 의류를 재활용하여 디자인한 제품으로서 비교적 받아들이기 쉬운 가치지향 소비를 실천할 수 있고, 디자인 측면에서도 취향을 반영한 선택적 소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패션의 범주를 넓힌다. 또

한 프리야 알루왈리아처럼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소싱 활동에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관심을 가짐으로써 인식 변화를 이루어 미래 가치를 이끄는 패션 시장의 실질적 방향성까지도 제시할 수 있다.

셋째, 이타적이고 위기에 실용적인 디자인으로서 사회적 가치의 실천 가능성을 나타낸다. 재난 재해에 고통 받고 있는 난민이나, 노숙자를 지원하는 용도로 제작한 츠무라 코스케의 15 Below Project는 환경적, 윤리적 실천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과 발전을 요구하는 의식을 이끌며 캠페인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는 패션 브랜드를 중심으로 지역문화 정체성과 인간 상호존중의 윤리적, 사회적 가치 의식이 점차 대중화되고 있음을 보이며(Ha, 2014), 지속가능한 패션으로서 창의적 재활용의 발전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

V. 결 론

이처럼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창의적 재활용 디자인은 패션의 공급망을 자원 순환의 관점에서 전개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 의류 생산 공정의 폐기물, 재고 의류의 폐기물, 포장재 폐기물 등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폐기물의 활용 범위를 폭넓게 수용함으로써, 기획 - 생산 - 폐기 - 수거 - 재사용의 순환 구조로 자원의 수명을 이어갈 수 있다. 또한 폐기되는 자원의 특성을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여 전개함으로써 폐기물의 재해석 관점에서 기성품과는 차별화된 표현 특성을 나타낼 수 있고, 독창성과 희소성을 담은 예술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지속가능을 위한 패션의 창의적 재활용은 자원 순환을 이루는 관점에서 심미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디자인 표현 방법으로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 가치가 있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로 친환경적 측면에서 전개되어왔던 지속가능을 위한 패션과는 달리, 자원의 순환 관점에서 디자인 요소를 전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자원의 특성과 조형 방법만을 가지고 재생 순환을 이루고, 기능적, 심미적 디자인으로 전개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패션의 발전 가능성을 나타낸다.

둘째, 폐기물의 재해석 관점에서 자투리 원단이나 포장재 폐기물을 충전재로 재활용함으로써 동물 착취를 하지 않는 윤리적 책임을 더할 수 있고, 노동 환경의 개선, 노숙인을 위한 캠페인 활동 등 지역 사회와의 공생을 이루는 사회적 가치의 실천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폐기물의 재활용은 새로운 원자재의 소비를 줄여 경제적 이득을 도모할 수 있고, 또한 사회적 책임과 신념을 다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함으로써 홍보 효과 및 마케팅 경쟁력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이윤을 창출하는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다.

지속가능을 위한 실천은 미래를 위한 공존의 핵심 가치로서, 패션의 창의적 재활용은 지속가능을 위한 소비재로서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사료된다. 그동안 비내구재 유형으로 구분되던 패션은 변화와 유행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환경오염 유발에 관한 문제점이 지속해서 쟁점 되어왔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창의적 재활용 관점에서 재생활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전환함으로써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재활용의 가치를 확대하고, 착한 소비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명한 근거 제시와 좋은 품질, 공감을 일으키는 디자인들이 선행(Lee, 2019)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폐기 대상인 자원을 경제재로 인식하여 자원의 유한성을 극복하고, 윤리적, 예술적 균형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창의적 재활용 디자인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순환 경제 체

제를 이루는 공동의 개선 방안으로 발전되길 기대해본다.

References

- AW20 show. (n.d.). *Rave Review*. Retrieved November 1, 2021, from <https://www.rave-review.com/collections/aw20-show/>
- Bobb, B. (2020, January 28). Rave review: Copenhagen fall 2020. *Vogue*. Retrieved November 1, 2021,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copenhagen-fall-2020/rave-review>
- Cardini, T. (2020, February 24). Introducing re-find: Weekend Max Mara's new signature collection-A collaboration with Lucinda Chambers. *Vogue*. Retrieved October 25, 2021, from https://www.vogue.com/slideshow/max-mara-lucinda-chambers-re-find-collaboration?utm_source=headtopics&utm_medium=news&utm_campaign=2020-02-24
- Espadas, V. (n.d.). "Final home" survival jacket. *Le Petit Archive*. Retrieved November 28, 2021, from <https://www.lepetitarchive.com/issey-miyake-final-home-survival-jacket/>
- Farra, E. (2021, November 2). Priya Ahluwalia wants your old clothes: How a new Microsoft collaboration brings consumers into the upcycling process. *Vogue*. Retrieved November 28, 2021, from <https://www.vogue.com/article/ahluwalia-microsoft-upcycling-collaboration-circulate>
- Final home project. (n.d.). *Kosuke Tsumura*. Retrieved November 28, 2021, from <https://www.kosuketsumura.com/finalhome-archive>
- Fletcher, K. (2011). *Sustainable fashion & textile* (Lee, J. H., & Kim, S. H., Trans.). Seoul: Gyomoon. (Original work published 2008)
- Fuad-Luke, A. (2009). *The eco-design handbook: A complete sourcebook for the home and office*. London: Thames & Hudson.
- Ha, S.-Y. (2014). A case study and product planning characteristics of global eco-fashion brands. *Journal of the Korea Fashion and Costume Design Association*, 16(3), 219-238.
- Ham, S. T. (2021, September 8). 재활용은 자원순환경제의 시작, 자원순환사회가 도시경쟁력 [The new use is the beginning of a resource circulation system and urban competitiveness]. *Yongin21*. Retrieved May 22, 2022, from <https://www.yongin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507>
- Hoshino, M. (n.d.a). Spring/Summer 2016. *Kuon*. Retrieved October 24, 2021, from https://kuontokyo.myshopify.com/pages/spring-summer-2016?_pos=1&_sid=2e22bffb3&_ss=r
- Hoshino, M. (n.d.b). Fall/Winter 2016. *Kuon*. Retrieved October 24, 2021, from <https://kuontokyo.myshopify.com/>

- pages/fall-winter-2016
- Jeong, Y. R. (2012). *A study on upcycle redesign using waste in fashion goods industry: Focused on the reuse of industrial wast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B.-Y., & Kim, S.-A. (2010). Exploring the extension and implementation approach of sustainable design concepts: A comparative case analysis of two global compan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23(4), 289-302.
- Kim, H. J. (2020a). 버려진 것이 옷이 되다[An abandoned thing turns into clothes]. *Happy Design House*. Retrieved November 10, 2021, from http://happy.designhouse.co.kr/magazine/magazine_view/00010004/7302
- Kim, H. J. (2021, December 3). 미래를 위한 폐기물의 이 유 있는 변신 ‘업사이클링’ [A reasonable transformation of waste for the future ‘upcycling’]. *Samsung Display Newsroom*. Retrieved May 24, 2022, from <https://news.samsungdisplay.com/29952>
- Kim, K. M. (2019, June 10). 프랑스 정부, 브랜드의 재고 폐기 일체 금지 선언 [French government declares no disposal of brand's inventory]. *Hypebeast*. Retrieved December 2, 2021, from <https://hypebeast.kr/2019/6/france-bans-destruction-of-unsold-luxury-clothes-anti-waste-campaign>
- Kim, S.-R. (2020b). A study on the conscious fashion in contemporary fashion.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Art and Design*, 23(1), 11-32.
- Kwan, J.-S. (2012). Based on the perspective of sustainability, the characteristics of upcycle fashion design. *Fashion & Textile Research Journal*, 14(1), 13-23. doi:10.5805/KSCI.2012.14.1.013
- Lee, B.-K. (2019a). The spread of good consumption of sustainable fashion for the global environment. *Journal of the Seoul Institute*. 작은 연구-좋은 서울 19-16.
- Lee, D., Jung, K., & Bae, S. (2018).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material in the Korean up-cycling fashion brands (Part I).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42(3), 486-502. doi:10.5850/JKSCT.2018.42.3.486
- Lee, J. H. (2019b). A study on korean company cases by upcycling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llustration Research*, 61(-), 115-124. doi:10.37379/JKSIR.2019.61.11
- Lee, Y. H. (2019c, January 4). [2019 Hot Brand] 코오롱FnC ‘레코드’ - ‘윤리적 패션’의 대표주자로 부상[Kolon FnC ‘Re;Code’ - Emerges as a representative of ‘ethical fashion’]. *Korea Textile News*. Retrieved November 1, 2021, from <https://www.k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373>
- Lee, Y. K. (2014). Sustainability and emotional design in fashion. *Journal of Korea Design Forum*, 45(-), 321-330. doi:10.21326/ksdt.2014.45.029
- Lyu, K.-J., & Huh, E.-O. (2006). A study on the environment-friendly design in contemporary fashion. *Journal of Fashion Design*, 6(1), 57-78.
- Madsen, A. C. (2020, December 16). Alexander McQueen: Spring 2021 ready-to-wear. *Vogue*. Retrieved October 18, 2021,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21-ready-to-wear/alexander-mcqueen>
- Mira, N. (2019, March 28). Max Mara goes green with upcycled eco-padding for coats. *Fashion Network*. Retrieved October 25, 2021, from <https://www.fashionnetwork.com/news/Max-mara-goes-green-with-upcycled-eco-padding-for-coats,1083402.html>
- Mower, S. (2019, June 10). In London, Priya Ahluwalia's upcycled clothes “grab the heart”. *Vogue*. Retrieved November 5, 2021, from <https://www.vogue.com/article/priya-ahluwalia-upcycled>
- Mower, S. (2020, January 8). Ahluwalia: Fall 2020 menswear. *Vogue*. Retrieved November 5, 2021,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0-menswear/ahluwalia-studio>
- Nam, H. J. (2020, September 4). 레코드와 나이키의 만남 [A collaboration between Re;Code and Nike]. *Vogue*. Retrieved November 10, 2021, from <https://www.vogue.co.kr/2020/09/04/레코드와-나이키의-만남/>
- Oh, Y., Yoon, J.-A., & Lee, Y. (2016). Expression method and technique of upcycling design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6(7), 109-123. doi:10.7233/jksc.2016.66.7.109
- Park, J. H., & Kim, Y. H. (2014). A study on fashion design for up-cycled waste resour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64(8), 138-154. doi:10.7233/jksc.2014.64.8.138
- Peoples, L. (2017, February 25). One man's trash is (apparently) Moschino's couture. *Refinery 29*. Retrieved November 12, 2021, from <https://www.refinery29.com/en-us/2017/02/142585/moschino-trash-collection-fall-2017-jeremy-scott>
- Phelps, N. (2017, February 23). Moschino: Fall 2017 ready-to-wear. *Vogue*. Retrieved November 5, 2021,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7-ready-to-wear/moschino>
- Pre-spring 2022. (n.d.). *1/OFF Paris*. Retrieved October 24, 2021, from <https://www.1offparis.com/pages/pre-spring-22>
- Reuse. (n.d.). *Wikipedia*. Retrieved June 22, 2022, from <http://en.wikipedia.org/wiki/Reuse>
- Rufus. (2015, August 15). The three RS & the difference between recycling and reusing. *Clearance Solutions*. Retrieved May 23, 2022, from <https://www.clearancesolutionsltd.co.uk/reuse-and-recycling/the-three-rs-the-difference-between-recycling-reusing/>
- Sandt, S. V. D., Dallmeier-Tiessen, S., Lavasa, A., & Petras, V. (2019). The definition of reuse. *Data Science Journal*, 18(22), 1-19. doi:10.5334/dsj-2019-022
- Silbert, J. (2020, February 10). Kuon fw20 revamps european workwear with lavish japanese craft. *Hypebeast*. Retrieved October 24, 2021, from <https://hypebeast.com/2020/2/kuon-fall-winter-2020-collection-lookbook-new-york-fashion-week>
- Singer, S. (2019, March 4). Alexander McQueen: Fall 2019 ready-to-wear. *Vogue*. Retrieved October 18, 2021, from

-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9-ready-to-wear/alexander-mcqueen>
- Singer, S. (2019, September 30). Alexander McQueen: Spring 2020 ready-to-wear. *Vogue*. Retrieved October 18, 2021,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20-ready-to-wear/alexander-mcqueen>
- Sockeel, E. (2021, April 16). Interview met 1/OFF: dit nieuwe luxe upcycling merk verknijpt Chanel en Levi's jasjes. *L'officiel*. Retrieved October 24, 2021, from <https://www.lofficiel.be/nl/mode/interview-met-1-off-het-nieuwe-upcycling-merk-dat-chanel-en-levi-s-jasjes-verknijpt>
- Spring-Summer 2019 Ready-to-wear. (n.d.). *Rave Reveiw*. Retrieved November 1, 2021, from <https://www.rave-review.com/collections/ss19-2/>
- UN Alliance aims to put fashion on path to sustainability. (2018, July 12). *UNECE*. Retrieved October 15, 2021, from <https://unece.org/forestry/press/un-alliance-aims-put-fashion-path-sustainability>
- Wang, K. H. (2014). A study on characteristics of material types in upcycling bag desig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Culture*, 20(2), 337-351.
- 재활용[Reuse]. (n.d.). *Urimalsaem*. Retrieved October 10, 2021, from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1316179&viewType=confirm
- 재활용이란[What is Upcycling]. (n.d.). *Seoul Upcycling Plaza*. Retrieved October 18, 2021, from <http://www.seoulup.or.kr/introduce.do?type=Introduction>
- 지속가능발전의 생성과 전개[Generation and Develop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n.d.).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trieved November 19, 2021, from <http://ncsd.go.kr/api/지속가능발전의%20생성과%20전개.pdf>

Creative Reuse for Sustainability in Contemporary Fashion

Chae, EunJi · Joo, Bo Rim⁺

Doctoral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Ewha Womans University⁺

Abstract

The movement of sustainability for humanity and the environment is no longer an option but an essential. While the past society engaged in discarding generated waste, the current society focuses on reducing the amount of generated waste and minimizing the negative environmental impact by utilizing the method of resource circulation. This phenomenon leads to lots of research and developments on eco-friendly fashion, upcycling fashion, and conscious fashion for sustainability. Hence, it causes a change in consciousness from consumers and companies to have ethical values in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processes. Creative reuse is beginning to attract attention as a new paradigm and represents the concept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with not only ethical value but artistic value. Therefore, this research examines a movement of contemporary fashion based on social and ethical responsibility, and it classifies creative reuse design examples presented in designers and fashion brands into three different categories to derive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The three different categories are as follows: creative reuse of the discarded or stock fabric in the clothing production process, creative reuse of extra stock attires, and creative reuse of package wastes. This study is meaningful to achieve the complementary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 and fashion for creative reuse to present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differentiated from sustainable fashion design, which mainly focuses on resource circulation. By utilizing a wide range of waste, a fashion industry can reach resource circulation to sustain sufficient resource life span. It is expected for the fashion industry to obtain important social and ethical value from using characteristics of waste as design components. Thus, creative reuse in fashion is considered to be essential to coexistence for the future.

Key words : creative reuse, sustainability, resource circulation